

여벌 없어 불량 방화복 입고 '위험한 출동'

'미검증 방화복 사태' 광주지역 소방서 가보니 수명 다한 것도 수두룩... "새 방화복 언제쯤..."



출동 대기 중인 광주동부소방서 소방차 옆에 방화복 20여벌이 걸려있다. 아래 사진은 착용 보류 조치된 방화복에 붙은 라벨.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지난 24일 찾은 광주 지역 소방서는 '불량' 방화복으로 발집 수신 및 시끄러웠다. 정부가 '착용 보류' 조치를 내렸던 방화복을 바꿔 모두 퇴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한 뒤에도 일선 현장은 의심 방화복을 찾아내거나 여벌 방화복 문제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등 혼란스러웠다.

서부소방서의 경우 소방행정과 직원들은 '불량' 방화복 사건이 터진 뒤 벌써 3번째 '방화복 찾기'에 나선 상태였다. 품질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지만 어디 있는지 모르는 탓에 일일이 방화복 안쪽에 붙어 있는 라벨을 뒤적여야 하는 정황이 있었다.

국민안전처는 애초 방화복 제작업체가 납품한 방화복 1만9300여벌 중 5300여벌

이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납품된 것으로 파악, '착용 보류'를 지시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광주의 경우 984벌로, 전체 방화복(2156벌)의 45.6%였다.

자칫 출동 현장에서 '불량' 방화복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등 소방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시급한 조치가 이뤄져야 했지만 누가 입고 있는지, 어디에 보관중인지를 확인하기 쉽지 않아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는, '숨은 방화복 찾기'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담당 직원들은 휴가중인 직원들, 비번 근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방화복 보관 장소를 물어본 뒤 일일이 확인하는 등 신경을 썼다.

담당 대원들은 "처리할 일도 밀려있는데 갑작스런 불량 방화복 사건으로 다른 업무는 손도 못 대고 있다"면서 "일일이 육안점검을 해야해 다소 시일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애초 '착용 보류' 조치를 내렸다가 모두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갑작스런 방침 변경 탓에 현장 혼란은 더했다. 광주시 소방본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착용 보류 조치 이후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불량' 방화복을 입으라는 방침이 전달되기도 했다.

현장 대원들의 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여벌이 충분하지 않은데, 신규 공급 계획도 늦어지면서 동료 장비를 빌려 입고 출동하는 경우마저 빚어지고 있다.

광산구 월곡 119안전센터의 경우 불량 방화복 사용 중단 뒤 현장 출동 과정에서 입고 나갈 여벌이 없어 비번 근무자들의 방화복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번 출동 뒤 흠뻑 젖었지만 여벌이 없어 잦은 방화복을 그대로 입고 출동하는 일도 발생한다는 게 현장 대원들의 푸념이다. 그나마 '퇴출' 방화복을 대체할 신규 방화복 공급 시기도 60일 이상 걸릴 가능성이 커 현장 대원들의 불만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불량' 방화복 사건을 계기로 내구 연한이 지난 방화복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소방대원은 내구연한 3년이 지난 노후한 방화복을 착용한 채 출동, 현장에서 화재 진압에 나서고 있다는 게 소방대원들 설명이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이달까지 부족한 방화복을 추가 구매할 예정이지만 국비 지원이 3월어야 이뤄질 것으로 보여 현장 대원들에게 공급되기까지는 당분간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기자 pboxer@kwangju.co.kr

딱 걸렸어!

여수경찰 택시기사 변신 스마트폰 장물매입 적발

경찰이 택시 기사로 변신, 분실·도난당한 스마트폰을 할값에 사들이려 팔아넘기는 일당을 걸거했다.

여수경찰청은 25일 택시 기사 등을 상대로 분실 스마트폰을 대당 5만~10만원에 매입, 다른 중간 판매처에 팔아넘긴 혐의(상습 장물취득)로 장물 수집상 전모(36)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여수시 문수동 전주교회 앞길 등에서 택시기사 심모(52)씨 등에게 분실스마트폰 등을 넘겨받아 서울 지역 중간책에게 대당 15만~20만원을 받고 판매했다.

경찰은 여수엑스포역 택시승강장에서 택시기사들에게 명함을 나눠 주고 기사들이 가져온 스마트폰을 구입, 판매하는 전씨를 검거하기 위해 영업용 택시를 빌려 타고 택시기사로 위장한 뒤 "판매할 스마트폰이 있다"고 접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세종시서 전 동거녀 가족 3명 업종 살해 용의자는 자살... 재산·애정 갈등 빚은 듯

세종시에서 50대 남성이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여성의 가족 등에게 업종을 쏘 3명이 숨졌다. 이 남성은 사건 발생 직후 달아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3명 살해 후 방화까지= 25일 오전 8시 10분께 세종시 장군면 금암리 한 편의점 인근에서 강모(50·경기 수원)씨가 출근을 위해 차량에 타던 김모(50)씨의 머리 부위에 업종을 쏘았다.

강씨는 이어 50m가량 떨어진 김씨 아버지(74)의 집으로 이동해 식사 중인 김씨 아버지에게도 총을 쏘 뒤 바로 옆에 있던 편의점에 들어가 안에 있던 송모(52)씨를 향해 업종을 발사했다.

이어 강씨는 편의점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

이 사건으로 김씨 부자와 송씨는 모두 숨졌다.

숨진 김씨에게는 여동생(48)이 있었는데, 강씨는 그녀와 한때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여동생은 1년 6개월 전 강씨와 헤어진 이후 송씨와 함께 지내오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직후 김씨 여동생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아 소문이 무성했으나, 그녀는 당시 경기도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 여동생은 현재 경찰의 보호 아래 조사를 받고 있다.

◇범행 2시간 만에 강씨도 숨진 채 발견=범행 후 자신의 딸 명의로 된 산타모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던 강씨는 이날 오전 10시 6분께 사건 장소에서 4km가량 떨어진 금강변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강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시신 배 위에서는 강씨가 범행과 자살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업종 1정이 발견됐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10분께 강씨 차량을 발견하고서 일대를 수색했다. 해당 차량 안에는 또 다른 업종 1정이 있었다.

◇경찰 "재산 지분 문제로 갈등"=경찰 조사결과 강씨는 김씨 여동생과 관계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편의점 투주 지분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강씨가 돈거래 문제를 비롯해 김씨 여동생과의 틀어진 관계 등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차차 세종경찰서장은 이날 오후 열린 수사 중간브리핑에서 "해당 편의점은 김씨 아버지 명의로 돼 있다"며 "강씨가 편의점 소유권 문제와 김씨 여동생과의 관계 등 때문에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씨가 사건 발생 이틀 전에 범행 장소와 멀지 않은 지구대에 총기를 맡기고 사건 발생 직전 총기를 출고한 점 등으로 미루 계획된 범행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숨진 강씨에게서 타살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근로정신대 할머니의 눈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25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할머니 한 명당 후생연금 탈퇴수당으로 1854원을 지급한 일본 당국을 규탄했다. 강제 노역을 당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日정부 후생연금 199엔은 모욕"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회견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5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 기관이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두 번째 청구한 후생연금(국민연금) 탈퇴수당 지급 요청에 199엔(1854원)을 지급했다"면서 "70년이 지

난 현재 화폐가치 변화를 무시하고 2000원도 안 되는 수당을 지급한 처사는 모욕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시민 모임은 지난 2009년 12월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후생연금 탈퇴수당 99엔 지급 파문' 이후 김재립(85)·심신애(85)·양영수(86) 할머니가 연금을 납입한 1년간 기록을 확인하고 지난해 11월 후생

연금 탈퇴수당 지급을 추가 요구했다.

시민모임은 "후생연금은 단순히 근로정신대로 동원된 할머니 몇 명의 문제가 아니라 노무자로 끌려간 70만~80만명에 해당하는 문제"라며 "연금 납입기록 확인은 피해자들의 근무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인 만큼 정부차원의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2월 27일 김재립 할머니 등은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백희준기자 bhj@

인형뽑기 열반자 기계 턴 40대



○인형 뽑기에 30차례 도전했지만 상품을 단 한 개도 뽑지 못하자 찾아가 인형뽑기 기계를 턴 40대 남성이 경찰서행.

○25일 광주광산경찰청에 따르면 김모(42)씨는 지난달 30일 밤 10시10분께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버스 승강장 앞 인도에서 철제 옷걸이를 이용해 인형뽑기 기계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보관돼 있던 인형 등 20만 원 상당의 상품을 훔쳐간 혐의.

○김씨는 당시 훔친 상품을 자신의 차량에 옮기는 모습이 CCTV에 찍히는 바람에 경찰에 붙잡혔는데, 김씨는 경찰에서 "인형 뽑기를 하다 승부욕이 생겨 3만 원이나 투자했지만 한 개도 못 뽑아 회가 났다"고 진술.

/백희준기자 pboxer@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신축 원룸 매매

전대정문 2분 (신축 4층건물)
룸12개, 올 대리석시공, 신축 (1침점포 1개, 2~3층 룸 10개, 4층 주택 1개, 옥탑)
월수익 500만, 매매가 6억 7천
추천물건 목포 용해동 전원주택 매매 용해동 교회 앞 금호아파트 사이 대지310평 전주택 2채, 무화과나무 있음
매매가 3억 (용 1억 2천)

① 전대정문 1분코너 룸12개, 올대리석시공, 신축 12개, 월수익 700만, 매매가 7억 8천	④ 전대상대 2분, 올대리석시공, 신축 4층 주택, 월수익 400만, 매매가 6억 5천
② 용해동 용봉지구 미래도 A 코너 룸 19개 (1층상가, 4층 주택) 엘리베이터 완비, 대지 106평, 월수익 900만, 매매가 11억	⑤ 동신대 후문 2분, 올대리석시공, 신축 4층 주택, 월수익 10억, 매매가 10억
③ 동구 대인동 고사원 룸 72개, 월수익 1천 2백, 매매가 21억	⑥ 생촌동 원룸 1개 (운천역2분), 월수익 4천 8백, 매매가 4천 8백

한신공인중개사 062)527-7600

상가건물매매 (7층 사우나)

북구 우산동 7층건물 (올수리)
월수익 900만
(주인 직접 운영시 월 1,800만 수익 발생)
매매가 13억 (보 1억, 용 6억)
추천물건 영주동 (화정동) 상가건물 1~2층 상가 3층주택 삼거리 코너 앞
매매가 7억 3천 (보 1억 4천)

① 나주시 상명동 상가건물 2층 영강초교 앞 1층 6칸, 2층 4칸, 월수익 200만, 매매가 2억 8천	④ 목포 용해동 전원주택 매매 (빌라부지) 도로2차선열, 비닷가 5분, 무화과 나무 식재됨, 대지 310평, 주택 2채, 50평, 매매가 3억 2천
② 서구 상무지구 정연 3층 상가 30평 (보 1천, 월수익 70만), 매매가 1억 2천	⑤ 수원지구 모이평 1/2 3층 85평, 보 2천, 월 200만, 용 2억 5천, 매매가 3억 5천
③ 서구 상무지구 3층 롯데마트 옆 4층 3중 62평 월수익 150만, 매매가 2억 5천	⑥ 서구 상무지구 수림6층 15평, 보 3백, 월 32만, 매매가 4천 8백
⑦ 서구 상무지구 5층건물, 월세 1천 8백, 매매가 20억	

(주)대신 010-6670-9800

상무지구 사무실 임대 (5층 학원)

평수 100평 (전용 80평)
이면도로코너 학원리모델링 함
주차 4대 무료 확보(주위 200대)
중심 상무지구에서 저렴함
보 3천, 월 130만

나주 상가 2층건물 매매

① 영신중, 고교 앞, 영강 초교 앞
② 대덕 APT 유동인구 많음
③ 대지 210평 (1층 6칸)
④ 건물(2층2칸), 학원적합

매매가 2억 8천

010-6670-9800

(주)대신경매 (임할부터 매매 임대까지 원스톱지원 건축 리모델링 개발 무료상담해드림)

근린사실/ 근린주택

- ① 순천시 행동 (토 373㎡, 건물 1,304㎡) 감평가 17억, 최저가 12억
- ② 순천시 연향동 (토 146㎡, 건물 276㎡) 감평가 5억 7천, 최저가 5억 7천
- ③ 순천시 장천동 (토 423.1㎡, 건물 1,138㎡) 감평가 10억, 최저가 9억 7천
- ④ 남구 백운동 (토 315㎡, 건물 636㎡) 감평가 5억 2천, 최저가 3억 5천
- ⑤ 남구 지석동 (토 105㎡, 건물 88㎡) 감평가 8천 1백, 최저가 5천 8백
- ⑥ 북구 오룡동 (토 1,199㎡, 건물 3,987㎡) 감평가 35억 9천, 최저가 24억
- ⑦ 동구 계림동 (토 445㎡, 건물 1,558㎡) 감평가 10억 8천, 최저가 4억 8천
- ⑧ 북구 일곡동 (토 9,600㎡, 건물 250㎡) 감평가 41억, 최저가 41억

근린 상가

- ⑤ 서구 차평동 (대 37㎡, 건물 165㎡) 감평가 3억 8천, 최저가 1억
- ⑥ 광산 도산동 (대 91㎡, 건물 128㎡) 감평가 1억 2천, 최저가 5천 8백
- ⑦ 북구 중흥동 (대 13㎡, 건물 32㎡) 감평가 1억 9천, 최저가 8천 5백
- ⑧ 서구 금호동 (대 140㎡, 건물 235㎡) 감평가 8억 5천 5백, 최저가 4억 5천 5백
- ⑨ 광산 월계동 감평가 2억 2천, 최저가 7천 8백
- ⑩ 서구 풍림동 감평가 8억 7천, 최저가 4억 8천

주요소

- ① 서구 미림동 (토 1,132㎡, 건물 278㎡) 감평가 9억 9천, 최저가 6억 9천 8백
- ② 남구 안동동 감평가 7억, 최저가 4억 8천
- ③ 광산구 북동동 감평가 8억 8천, 최저가 8억 8천

토지

- ① 서구 매월동 (토 1,960㎡) 감평가 3억 5천, 최저가 2억 4천 7백
- ② 남구 봉선동 (토 417㎡) 감평가 1억 6천 8백, 최저가 9천 4백

010-6670-9800 / 062)382-5500

경매학원

이제 경매는 대중화시대
경매학원

↓

- ① 기본 실전스터디반
- ② (평생 회원반, 소수 정원제) (경매 입찰부터 매매, 임대)

↓

개발 건축 리모델링까지 원스톱

↓

- ① 수요일 오전 10시~12시 (저녁 7시 30분~9시)
- ② 목요일 오후 7시 30분~오후 9시

경매 컨설팅 해드립니다

010-6832-9700
062-382-5500